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처리 요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 ◆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실시함.
-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경과

- 감사기간 : 2019. 11. 28(목) ~ 12. 6(금) 《9일간 : 토·일요일 포함》
- 대상기관
 - 군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
- 감사위원회의 편성
 - 위 원 장 : 지광천 의원
 - 간 사 : 심현정 의원
 - 위 원 : 이주웅의원, 박찬원의원, 전수일의원, 이명순의원
 - 감사지원 : 전문위원, 사무과 직원

3 감사일정·대상기관·장소

일 시	감사 대상기관(부서)	감사장소	비 고
11.28(목) 10:00~ 감사종료시	▶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올림픽기념사업과	의 회 소회의실 (3층)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29(금) 10:00~ 감사종료시	▶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의 회 소회의실 (3층)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30(토)	공 휴 일		
12.01(일)	공 휴 일		
12.02(월) 10:00~ 감사종료시	▶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의 회 소회의실 (3층)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03(화) 10:00~ 감사종료시	▶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	“
12.04(수) 10:00~ 감사종료시	▶ 시설관리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	“
12.05(목) 10:00~ 감사종료시	▶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	“
12.06(금) 10:00~ 감사종료시	▶ 강평	“	강평

4 결과 및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괄 : 35건 【별첨1】
- 시정요구사항 세부내역 : 17건 【별첨2】
- 처리요구사항 세부내역 : 18건 【별첨3】

별첨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총괄)

(단위:건)

부 서 명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비 고
합 계	35	17	18	
기획담당관	6	3	3	
총무담당관	3	1	2	
올림픽기념사업과	2	2	0	
주민복지과	4	2	2	
종합민원과	0	0	0	
재무과	1	1	0	
허가과	0	0	0	
교육체육과	2	0	2	
문화관광과	5	3	2	
일자리경제과	2	1	1	
환경위생과	2	2	0	
산림과	4	1	3	
안전건설과	0	0	0	
도시주택과	2	1	1	
시설관리과	1	0	1	
보건사업과	1	0	1	
진료지원과	0	0	0	
농축산과	0	0	0	
유통원예과	0	0	0	
기술지원과	0	0	0	
상하수도사업소	0	0	0	

1. 행정사무감사 수감측면(기획담당관)

-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견진술을 위해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임에도,
- 단순한 관내 행사 참석 사유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출석요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또한,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고 오타가 많아,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 아무도 없는 감사장을 동의 없이 출입해 자료를 수정하는 사례가 있었음.
-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며,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기획담당관)

- 우리군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되며 그동안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 비혼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통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 인구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증가정책보다는 인구감소 방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홍보방법 강구(기획담당관)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이나 여전히 평창군정 홍보는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음.
- 지역 언론사와 상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홍보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중앙매체나 TV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와,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SNS, 인터넷 영상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처럼 과도한 광고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홍보사업 계약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전문 홍보담당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인사업무 추진 철저 (총무담당관)

- '18.7.1일부터 '19.11.5일까지 기간 중 1년 이내 전보자가 172명이며, 이중 12명은 2회 이상 전보를 하는 등 잦은 인사와 부서명칭 변경으로 주민과 조직 내 공무원들 조차 혼선을 빚고 있음.
- 공무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업무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기 바람.
- 지역출신 공무원을 중앙부처와 강원도로의 전출은 우리지역 인재로 인맥을 쌓는 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외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에도 전출이 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
- 전출에 대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평창군이 공무원 양성학교가 되지 않도록 인사교류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바람.

5. 평창평화특례시 추진 실질적인 대안 마련 (올림픽기념사업과)

- 우리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개최 이후 “평화”를 올림픽 유산으로 삼고 강원도와 협력하여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을 해왔으나, 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특례시는 춘천시, 특례군은 양구군로 지정하여 특례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여러 중앙부처에 건의, 국회의원 면담,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음.
-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주민들에게 올림픽에 대한 열정은 식어가고 있으며, “평화”라는 단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에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추진방법을 전환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기 바람.

6.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행사 추진 (올림픽기념사업과)

- 국제고체이온 학술 컨퍼런스 등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한 다양한 페스티벌과 세계문화오픈대회 등 동계올림픽 이후 유산사업으로 대규모 국제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행사가 대규모 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져 과연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투자대비 군민의 수혜도가 미약함.
- 2020년에 계획중인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수호랑 반다비 캠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숙박, 외식업소, 운송업체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개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장례식장 운영 철저(주민복지과)

- 평창장례식장과 진부장례식장의 활용상황을 보면 평창장례식장은 이용객의 30~50%가량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염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 진부장례식장은 2018년부터 염사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염사이용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하여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장례식장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관리·감독 철저 (주민복지과)

-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위탁시설인 평창지역자활센터가 2019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강원도 점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 시설의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에 어려운 주민을 돕는 시설에서 행정의 감독 소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9. 농공단지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철저 (재무과)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에서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내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계약업무를 추진 하고 즉흥적 판단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 평창올림픽 평화페스티벌 타당성 검토철저(문화관광과)

- 평화 메시지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평창올림픽 평화페스티벌” 사업은 행사마다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상이하고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본 행사는 “연예인 배불리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서 사업성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시티투어사업 추진 철저 (문화관광과)

- '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 사업은 평균 탑승인원은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남부지역 관광지에 대한 코스개발도 검토하기 바람.
- 운행버스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계약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지역 업체의 독점으로 계약단가가 상향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2. 백룡동굴 추가 개방계획 수립용역 추진철회 (문화관광과)

- 백룡동굴 추가 개방계획 수립용역은 '18년 11월부터 시행하여 준공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용역 진행에 대해 의회와 소통이 없음.
- 용역준공 이전에 백룡동굴에 대한 탐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문화와 관광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13. 진부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요인 제시 (일자리경제과)

- 본 사업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6차산업형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승인되어, 진부면 호명리 산42번지 일원 65,548㎡를 매입한 사업임.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초 계획과 다른 일반사업단지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음.
-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창과 방림의 농공단지, 기존에 기업유치를 위해 매입한 부지들과 비교할 때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성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 바람.

14. 마을단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철회(환경위생과)

-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주민들의 호의적인 평가로 당초 2개 읍·면에서 8개 읍·면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사업은 지구단위로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므로 지구단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주 설득 및 시공방법 개선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또한, 사업추진 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 후 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람.

15. 관광휴양지 피서철 쓰레기 처리 철저(환경위생과)

- 관광휴양지 피서철 쓰레기 처리는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운영기간 내내 투입인원이 동일하며, 관광객이 더 많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관광지에 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관광객이 적은 시기와 극성수기 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피서철에 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져 깨끗한 관광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6. 평창 산양삼축제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미흡 (산림과)

- 우리군은 2014년에 「평창 산양삼 특구」로 지정되어 평창 산양삼을 지역의 대표 임업 소득 자원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 산양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산양삼 축제를 계획하고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하였음.
- 용역수행 업체는 연구용역보다는 주로 이벤트를 대행하는 업체이며 용역의 결과는 타당성 검토 보다는 기존에 개최되는 효석문화제와 계촌클래식축제의 일부 프로그램 구상이 주된 내용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 향후, 타당성 검토용역은 전문인력이 확보된 검증된 기관과 계약을 추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바람.

17. 읍·면 소재지 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리감독 철저 (도시주택과)

- 읍·면 소재지 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이 사용중에 하자발생은 물론이고, 일부시설은 입주 전에 하자가 발생하고, 시공 중에도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실이 발견되고 있음.

-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공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등 부실한 시설물이 인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 예산의 전용·변경 제도 사용의 적정성(기획담당관)

- 예산전용이 '18년에는 19건에 245백만원이었으나 '19년 11월에는 24건에 1,196백만원으로 늘어났음.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이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예산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간 목적사업이 완전히 벗어나 의회의 이견과 예산의결이 필요한 예산조차도 전용·변경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색하게 함.
- 예산이 전용·변경으로 당초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평창이야기”배부 철저 (기획담당관)

- 평창군 주요시책과 행정뉴스, 지역소식 등을 전하는 평창이야기는 매월 18,000부가 제작되어 배부하고 있으나, 소식지가 배부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여론이 있음.
- 모든 주민들이 평창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수시로 확인하여 미 배부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소송수행 철저 (기획담당관)

- '18년 1월부터 '19년 11월까지 확정 소송이 37건, 진행중인 소송이 23건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 건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행정처분 이전에 법적자문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하고, 소송절차 이전에 상대방과 원활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비용, 시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계촌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철저 (총무담당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년 7월부터 추진중인 계촌클래식 정보센터 건립은 그동안 부지 선정문제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만큼 사업추진을 서둘러 계획된 시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신축건물과 함께 조성하고자 하는 재활용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신중히 검토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물 설치로 인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정보화마을 관리 감독 철저 (총무담당관)

- 우리군 3개 정보화마을에 대해 해마다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 특산품 포장재 지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운영이 잘 되는 마을도 있지만, 처음 시작한 때와 다르게 운영이 부실해지고 있는 마을이 있음.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운영이 부실한 마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6.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철저(주민복지과)

- 우리군에는 179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마다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발마사지기 등의 건강관리 기구를 비치하고 있음.
- 사용방법이 미숙하고 이용인원이 많아 건강관리 기구의 고장이 잦고,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자로 A/S를 요청하거나 수리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건강관리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또한, 경로당 이용시기가 농한기인 겨울철에 집중되므로 프로그램 운영이 겨울철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장수식당 참여단체 확대 (주민복지과)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의 무료급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수식당은 식재료비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봉사의 성향이 강한 사업으로 읍·면별로 한 단체에서 수년간 봉사를 하고 있음.
- 향후, 운영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참여의지 단체에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철저 (교육체육과)

- '19년 전국 가을철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는 지역의 해당협회와 불협화음으로 도 협회 승인 없이 대회가 개최되어 아쉬움이 있음. 향후 각종 체육대회 개최는 지역의 협회 주도하에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종목별 협회가 없음에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대회 참가비 등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감안한 지원과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18년에 비해 '19년도에 2배로 늘었으나 개최장소가 경기장이 있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자칫 그 외 지역 주민이 소외될 수 있으니, 숙박이나 식사 등을 읍·면 전역에서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예산 집행철저(교육체육과)

-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예산 중 기타 전략대회 예산 90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평창군 내 체육대회 개최와 종교단체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선심성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0. 문화예술재단 사업추진 철저 (문화관광과)

- 그 동안 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평창군 위탁사업이 아닌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사장에 대한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문화예술재단 자체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자체사업 추진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최근 평창군 공무원을 문화예술재단으로 파견하는 인사가 있었음. 문화예술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량과 근무인력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평창 스노우오케스트라, 평창문화원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
- 지역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두 오케스트라의 통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우리군 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과)

-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축제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고, 축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등의 간접지원 예산도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음.
-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축제 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시내 상권과 떨어져 있는 축제장에 대하여는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농산물판매장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12.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철저(일자리경제과)

-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입지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많은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접근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기 바람,
-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재정능력과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기 바람.

13. 자연휴양림 운영 철저 (산림과)

- 우리군의 자연휴양림은 객실 가동률이 30%가량이고 매년 2천만원 가량의 손실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시설이 평창군민조차도 알지 못해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우리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객을 늘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림 등 산림사업 추진(산림과)

- 조림 등 산림사업 추진은 조합에 의한 수의계약과 관내업체 입찰을 통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산림사업은 산림 가꾸기에도 목적이 있겠으나 서민일자리 고용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최근 사업추진 방법을 보면 조기발주 위해 일괄 입찰을 시행하다 보니 종사자가 강릉 등 외지인이 참여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관내 주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내 서민들이 장기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조기집행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람.

15.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고사목 처리 (산림과)

-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평창 바위공원 진입로 하천변에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여 경관을 해치고 있음. 바위공원과 캠핑장, 돌문화 체험관 등의 관광 시설로 진입하는 도로이며, 최근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이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경관을 저해하는 고사목을 처리하기 바람.

16. 공영 마을버스 운영 보완 및 공영화 확대 검토 (도시주택과)

- 공영 마을버스 운영사업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농어촌버스 노선이 감축 또는 폐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을 운행하고자 '19년 10월부터 미탄면과 방림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사업임.
- 인근 지역으로의 교통연계 등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손실액 지원비용을 감안하여 공영화 전면 확대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17. 용도가 명확한 문화시설 운영 (시설관리과)

-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공연장과 체육시설, 전시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공연 시 울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문화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용도에 맞는 시설로 보완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18. 건강생활지원센터 셔틀버스 운영 철저 (보건사업과)

- 의료 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년 11월 개소하여 운영중인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음.
- 북부지역의 거점 시설이므로 진부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